

참 복음 참 사랑 -요한일서-

신명기 6:4-5, 요한일서 5:1-6

정윤돈 목사님

서론 : 요한일서의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 2주 동안 참사랑교회 주변을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40명 넘는 성도들이 예비전도 캠프를 진행했다. 사도바울도 인생 전체가 캠프였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것, 복을 전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각인이 되어야 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예비캠프에 참여한 성도들이, 전도에 부담을 갖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흐름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진도해라, 지교회 해라’ 하는 식으로 보통 하는데, 김요셉 목사님이 워낙 마친동에서 램프들과 축구하고 놀면서 캠프를 하던 분이라, ‘즐겁게 하라, 누리면서 하라’고 지도를 잘 해주셨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비된 문들이 발견되고 있다. 야구도 힘을 빼고 해야 잘 한다고 하지 않나. 캠프도 신앙생활도 즐기면서 하는 것이다.

(1)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랑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즐기면 아침저녁이 없다. 도박이 재미있으니까 새벽부터 하고 밤새 해도 괜찮다. 문제는, 세상 것들은 그렇게 즐거워도 결국 싹 망하게 만든다. 마약중독자류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왜 마약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재미있어서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빛으로 나왔다. 이것은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잘못하면 마약환자보다 못할 수 있다. 다 숨기고 다니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숨길 게 없다. 다 말한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싶어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이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없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가장 깨끗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알콜중독자들이 술을 누리는 것보다 못 누리던단 그 것은 바보다. 이번 캠프도 그렇고 선교캠프도 그렇고 다 얼마나 즐거운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고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 문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훨씬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다. 친구에게서 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가 보니까, 부친상인 줄 알고 갔더니, 본인이 죽었다. 주유소를 하면서 늘 술 먹고 그랬었는데, 즐겁게 사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끝났다.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 행복한 것 같지만 잠시일 뿐이다. 죽은 분도 최고 비싼 차 타고 다녔는데 2년 딱 타고 그 다음에는 걸어다니더라. 순간적인 만족은 결국 마귀가 속이는 것이다. 세상 것이 다 그렇다. 내가 정치 1번지에 살았었지 않다. 주변을 보면 다 불행하다. 정치도 중독이다. 다 불행하게 만든다. 자신은 뛰어난다고 선생님 소리 듣고 민주화 하는데, 결국 영지주의자 이야기였다. 지식, 이데올로기, 이념, 정치, 뛰어난 놈 봐도 결국 그렇게 된다. 정치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다. 정치 특강을 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정치인들이 시간 맞춰서 온 사람이 딱 두 명 밖에 없었다. 전부 술 먹고 돌아다니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약간만 빛을 발하면, 어두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을 구분 못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쳐 마시고, 같이 돌아다니고 골프치고 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고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일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무슨 교회 안에서 그리 섭섭한 게 많고 빠질 일이 그렇게 많은가. 복음 받았는데 섭섭한 게 뭐가 있는가. 완전히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복음 받았으니까 완전히 사랑해야 한다. 죄 중의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했다.

(2)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70년이 지났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 그러니까 이단도 많이 나오고, 성도들의 사랑도 식어가기 되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싸울 것 다 싸우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부패할 것을 다 부패한다. 더 맞아야 한다. 어떻게 감히 교회에 와서 이 말 하고 저 말 하면서 의견을 내는가. 아직 덜 맞아서 그렇다. 정말 맞으면 아무 말도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될 분들은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이다. 아직 덜 죽었으니까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저래요?’ 이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상태라서 그렇다. 완전히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배나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겠는가? 반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중독은 반복할 때 일어난다. 게임도, 피아노도,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낀다.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드릴 때는 힘들다. 처음이어서 그렇다. 피아노도 처음 칠 때 즐길 수 없다. 노래도 그렇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고 하면 즐거움이 있다. 전도캠프도, 선교도 그렇다. 나쁜 중독이 있고 좋은 중독이 있는데, 책을 읽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과유불급이다. 균형이 안 잡히게 되면 실컷 공부해 놓고 망하게 된다.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먼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정해 놓아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안 된다. 영적 기초, 인생의 기초를 먼저 확실하게 해 놓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다. 복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멍청해서 그런 것이다. 아이큐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웃음) 정말 악한 것이고 정말 이기적인 것이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다. 빛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오직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다. 다 죄인이자 않은가. 용서 받아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복음이고 그리스도다.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문제, 쾌락에 문제에 쩌들어져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다. 태국에 가 보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할 때 수십 억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하다가 다 썼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나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무언가에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야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다. 사실은 다 끌려가고 있었다.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캠프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노인정에 들어갔는데 오금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와 있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킨 것이다. 올림픽아파트에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짝 차 있다. 그러는 가운데 자녀문제, 부부문제를 실체 겪고 있다. 성절도 너무 더럽다.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올림픽교회 요원들과 함께 일본 히로시마 선교캠프를 다녀오게 된 것이다. 이분들이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서 계좌이체를 다 해 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다녀오게 되었다. 나까지 그래서 갔다오게 되었다. 그래서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완벽하구나.’ 1년 동안 올림픽 지역을 두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 거기 가서 전도, 선교 팀 형성을 하고 온 것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해 본 사람은 이 계획을 발견할 수 없다. 응답을 발견할 수 없다. 이명 집사님도 체험했을 것이다. 노인정에 들어가려고 팀을 모아서 오카리나 연주를 했더니, 노인들만 들을 줄 알았는데, 교생 선생님이 오금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또 이 선생님이 박서윤 램프와 절친이라는 것 아닌가. 나중에 돌아해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희열, 그 즐거움,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한다.

(3)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안에는 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요한일서는 참 복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심도있게 알려주고 있다. 또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세가지쪽에 요한일서를 읽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책이 있다. 하지만 요한일서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하 어렵다. 나도 이번에만 요한일서를 50번 넘게 읽었다. 여러분에게 이번에 시간 되는 만큼 풀어 드리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읽어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야 한다.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 설교할 수가 없다. 이 안에 물어보아야 할 부분이 몇 십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고 예습도 하고 그래야 알 수 있다. 여기 사명자들이 모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요한일삼서를 읽어 보라. 그리고 체크도 하고,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하시기 바란다.

1. 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면 참 복음, 참 진리란 무엇이었겠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사랑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진리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하겠다.

(1) 요일1:20에, 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임을 아는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는데, 누가 보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께 함께 계시다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이 예수님을 영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만회를 따라가면 지옥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직’을 말씀하셨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국어를 몰라서 그렇다. 신천지 교리를 보면 다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척 하나씩 다 빠져 버린다. 참 진리를 잘 아셔야 한다. 기쁨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단이 무엇이고 사단의 세력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 참된 성령의 기쁨부음이 없으니까 통일교에 빠지고 JMS에 빠지고 안상홍에 빠지고 사기꾼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학교도 가지 말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나.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자체가 영혼이 더럽혀진 것이다.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주받은 사람은 신천지에 있다’고 하더라. 맞지 않다. 여러분, 복음을 잘 깨닫고 건져내시기 바란다. 공부해야 한다. 그들을 변화시킬 만큼 공부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단 상담소에 데리고 가서 며칠만 제대로 공부하면 확 바뀌게 되어 있다. 우리가 못 하면 데리고 가 봐야 할 것 아닌가. 아니, 해 보자. 전문가끼리 토론을 제대로 해 보면 나올 것 아닌가? 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한 것이 이단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단들이 기독교에서 나간 것이다. 신천지가 다 교회에서 사기를 쳐서 나간 이 들이다. 정확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그래서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이해할 때 그것이 참 복음이 된다.

(2) 요일4:1을 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신천지 이만회,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문성명, 신비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 지식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이게 다 영지주의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노스티시즘(Gnosticism)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있었던 한통속이다. 왜 다 다른데 한통속이라고 하는가? 마귀가 한 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로, 우상으로, 지식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3) 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일5:1의 말씀이 요한일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구

절이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마귀로부터 난 자는 오직 예수가 안 된다. 오직 지식,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이만희로 빠진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갈보리산 십자가 희생 아닌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목회자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메시지를 들을 것 아닌가. 성도들과 함께 캠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 보라. 사랑스럽게 된다. 자주 만나야 한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도 친한 사람이 있다.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 때문이다. 자주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제하라. 그러면 사랑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의 시간표를 거기에 두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4)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음, 참 진리다. 요일5:11-13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이게 참 진리다. 이만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다. 마리아가 승천한 게 아니다. 그게 비(非)진리다. 어떻게 교황이 실수가 없는가. 교황 무오설. 마리아 무죄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영혼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귀의 영이다. 요한일서 5장 뒤쪽을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마리아가 죄가 없던가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마귀의 것이다. 요일3:8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기 위해서였다. crush, 완전히 깨부수고 박살내는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사상, 이념, 머리로 하는 것 아닌가? 잘못된 신념, 이상, 다 머리로 하는 것 아닌가? 그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 영혼을 살려내야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박살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지옥도 없다’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단의 섹이다. 지옥이 없다고 해 놓고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엄청난 전략이다. 이것에 여호와와 증인들이 빠져 있다. 이들을 살려낼 만큼 공부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구약성경 전체를 연구해서 히브리서로 정리한 것 아닌가. 진리의 정리를 생명결고 한 것이다. 단 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풀이 아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들어냈는지 모른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맞서 싸움 메시지를 이렇게 요한일서로 쓴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깨끗하며 육은 악하고 더러우니까, 마음대로 술 마시고 타락해도 된다고 가르쳤다.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재미있지 않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스 로마 당시는 다산 문화였기 때문에, 신전들이 다 다산의 신전이였다. 그래서 돈을 주고 제물을 바치며, 신전의 여자들과 매춘을 했다. 이런 것이 곳곳에 있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유방이 스물 몇 개가 있었다. 음란과 다산의 신이라는 말이다. 이런 육적인 타락이 문화화된 것이다. 지금도 문화가 육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 상업화되어가고 있다. 나는 램턴트들과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를 지켜보고 있다. 어머머하다. 초등학교생들부터 벌써 타락했다. 이남현 목사님하고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야동을 여섯 살 때부터 봤다. 어린 게 아니다. 악한 것일수록 눈이 잘 열린다. 친구들, 육을 안 할 수가 없다. 요즘은 여자애들도 다 육을 한다. 육을 안 하면 대화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 요즘 유행이 뭘지 아는가? 말만 하면 ‘개’ 자를 앞에 붙여서 말한다. 하도 그렇게 개XX, 개OO 이야기를 하고 육을 하더니, 얼굴까지 개의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웃음) 화장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 여러분, 금급하면 페이스북을 들어가 봐라. 하지만 안 하는 게 더 좋다. 영혼이 더러워진다. (웃음) 나도 현장 보기 위해서 조금 할 뿐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란다. 이런 잘못된 사상, 영지주의가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한이 답을 준 것이다. “그게 아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알콜중독, 도박중독이 어떤 것인 줄 아는가. 알콜, 도박, 끊었는데 몇 년 지나서 딱 한 번 했다가 다시 중독되어 버린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만 다시 해 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중독이 치유된다기보다,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끊은 사람들은 어떻게 끊을 수 있었겠는가? 죽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한다. 죄를 조금만 지어도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 요한일서를 보라. “너희가 조금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노라.” 결단하시기를 축원한다.

(5) 요일5:20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영생임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에도 똑같이 써 있더라. 그런데 이것을 속이니까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2.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탄이 악랄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1) 알콜 중독자가 알콜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도박중독자가 도박을 사랑하고 타락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노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스포츠 현장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전도현장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선교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아는 목사님은 매달 두 번씩 선교현장에 가신다. 교회도 작으니까 어떻게 가시느냐 했더니, 해외현장 가는 데 카드빚이 5천

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 선교에 중독된 분이다. 었제 만나서 여쭙봤다. “카드 빚 좀 갚으셨습니까?” “갚기는, 늘었지.” (웃음) 도박에 중독된 자는 빚을 내서도 한다. 마약에 중독된 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 마약을 한다. 여러분은 복음에 중독되었는가. 중독된 자들처럼 하고 있는가. 복음에 중독되지 않으면 타락에 중독된 자를 이길 수 없다. 이상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다. 정말 그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 물론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만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중심을 담아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얼마나 가치를 아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다. 알콜 중독자가 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나. 마약 사랑하는 것보다 현장을, 지교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현장에서 이기겠는가. 우리의 전문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2) 요한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과 죄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끌고 오자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램턴트들이 복음 모르면, 그 집안이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예방하자는 것이다. 지금 날씨가 32도가 된다. 캠프하기 딱 좋은 날씨다. (웃음) 그렇게 더운 날씨에 왜 나가는가? 지역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교회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치매 노인도, 장애인도 사랑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시는가? 수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여러분보다 예배 태도가 훨씬 낫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는데 장애인들이 ‘아멘!’ 한다. 중증장애인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영으로 알아듣는 것이다. 은혜받고 나면 가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웃음) 그에게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더니, “정용돈!” (웃음) 아니까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남편!” (웃음) 원장 남편인 걸 아니까. (웃음) 다 알고 있다. 그들도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① 요일4:11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일을 좀 하시기 바란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다.

② 요일2:9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 사랑을 소유한 성도라고 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한다.

③ 참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요일4:7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복사님이 일본에 있는 램턴트를 후원하려고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 왜인가?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 나왔다. “너희가 재물이 있고도 형제를 도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요한일서에 나온 이야기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면, 어제도 명진보육원에서 가출한 아이를 만났다. “당장 안 들어가면 앞으로 알짱 없어. 너를 안 도와줄 거야.” 그랬더니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 “목사님, 들어왔으니까 맛있는 것 사 주세요.” 그래서 곱장 사줬다. (웃음) 자식한테도 안 사주는 데. (웃음) 왜 가출하면 나한테 연락하지도 모르겠다. 선생님한테는 안 하는데, 이제는 가출한 다른 친구들의 정보까지 나한테 준다. (웃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웃음) 현상이 그냥 열리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열리는 것이다. 사람이 다 똑같다. 문제 청소년이 어디 있나.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 부모도 문제 조부모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근본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인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근본문제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현장을 살려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④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불신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다. 요일4:12를 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결론 : 선한 중독으로 세상을 치유해야 한다.

(1)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 복음과 참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의 죄와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결론적인 방법이, 정말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사랑하고, 알콜 중독자가 술을 사랑하고,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사랑하는 선한 중독에 빠져야 한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 그런 중독자들보다 못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다 21가지를 하고 있다. 그들은 술을 천명 소망 사명을 가지고 마신다. 24시간 술에 빠지다가 25시의 경험을 한다. 땅이 솟아올라서 치박하는 경험을 한다. 그러다가 자신과 가문을 영원히 멸망시킨다. 이것이 알콜중독자의 삶, 마약중독자의 삶 21가지다. 갈보리산 말고 알콜 갈증의 산으로, 감람산 말고 포도원으로, 마가다락방 말고 소주방으로 들어가서. (웃음) 이렇게 천명, 소망, 사명 가지고 술 마시는 당연, 필연, 절대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한다. 오직 술, 오직 마약 하다가 유일성, 재창조를 하게 된다. 24시, 25시 하다가 영원히 망한다.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술, 마약, 도박이다. 우리가 이것을 살릴 치유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명자가 우리 중에서 나와야 한다. 치유해야 한다. 매일 모여서 치유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에게 쾌락 회교가 있는데, 여기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되면 이 쾌락을 끊을 수가 없게 된다. 이것보다 더 쉼 것으로 중독되어야 치유된다. 복음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다. 모든 육신의 쾌락을 능가하는 복음의 희열, 말씀의 희열을 체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